

최근 미국 경제지표 점검 및 통화정책 전망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윤 영 교 (yoonyk@kdb.co.kr)

- ◆ 미국의 '25.3분기 GDP 성장률은 2년 來 최고치를 기록하는 양호한 결과를 보였으나 최근 물가와 고용지표가 불안한 흐름을 보이며 연준의 정책 대응에 어려움을 가중
- ◆ 상반기 중 親트럼프계 인사로 연준 의장 교체가 유력한 가운데 고용둔화가 지속되며 하반기부터 美 기준금리 인하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

□ '25.12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연준 내부의 이견이 확인된 한편, 미국 경제가 소비를 중심으로 강한 흐름을 보이며 추가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 가중

- 美 연준은 '25.12월 FOMC를 통해 3회 연속 금리인하를 단행(25bp)하였으나 동결 또는 인하폭 확대 등 이견을 제시한 위원이 다수 존재한 것으로 확인
 - 위원 12명 중 9명은 25bp 인하에 찬성하였으나 마이런 이사*는 50bp 인하를,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와 슈미트 캔사스시티 연은 총재는 동결을 주장
 - *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재무부 경제정책 선임고문을 지냈으며 2기 집권과 함께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으로 활동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분야 최측근 인사로 분류
 - '26.1.1일에 공개된 의사록에 따르면 금리인하를 지지한 위원들 중 일부는 정부 섯다운으로 인한 정보 부족*, 불안한 물가 흐름 등을 근거로 동결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남
 - * '26년 예산안 의회 통과 지연으로 43일간('25.10.1일~11.12일) 정부 폐쇄가 이루어졌으며 해당 기간 중 발표 예정이던 '25.10월 고용 및 소비자물가 등 주요 지표 발표 취소
- 미국의 '25.3분기 GDP 성장률은 4.3%(전분기비 연율)를 기록해 '23.3분기(4.7%) 이후 최고치를 기록
 - 개인소비지출이 3%대 성장률을 회복*한 한편, 정부지출 증가율도 3개 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**하였으며 순수출 적자도 4개 분기 만에 1조 달러 이하로 감소
 - * 개인소비지출(% , qoq 연율): 3.9('24.4Q) → 0.6('25.1Q) → 2.5(2Q) → 3.5(3Q)
 - ** 정부지출(% , qoq 연율): 3.3('24.4Q) → △1.0('25.1Q) → △0.1(2Q) → 2.2(3Q)
 -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세가 이어짐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추가 금리인하 지연 전망이 강화*
 - *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현재 금리가 중립금리에 도달하여 향후 금리결정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('26.1.6일)하였으며 연방기금금리선물에 반영된 '26.1월 금리 동결 전망은 87%까지 상승('26.1.8일 기준)

□ 관세로 인한 고물가 위험이 해소되지 않았으나 고용시장 불안, 특정 분야로의 투자 편중 현상이 심화되며 미국 경제에 불안 요인으로 자리잡을 전망

○ '25.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.7%(전년비)로 하락 전환하였으나 관세로 인한 물가지수 재상승 위험은 상존

- 지수 산출시 비중이 높은(34%) 주거비(shelter)* 상승률이 높은 금리의 영향으로 비교적 빠르게 하락하며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** 하락에 일조

* 주거비(% , yoy): 4.4('24.12월) → 4.0('25.3월) → 3.8(6월) → 3.6(9월) → 3.0(11월)

** 소비자물가(% , yoy): 2.9('24.12월) → 2.4('25.3월) → 2.7(6월) → 3.0(9월) → 2.7(11월)

- 반면, 에너지를 비롯한 생필품 품목의 가격 상승률*이 높아지며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음을 시사**

* 가정용 에너지 가격(% , yoy): 2.8('24.12월) → 3.8('25.3월) → 7.1(6월) → 6.2(9월) → 7.2(11월)

** 주거비 제외 소비자물가(% , yoy): 1.9('24.12월) → 1.5('25.3월) → 2.0(6월) → 2.7(9월) → 2.5(11월)

○ 미국의 고용지표의 둔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정 분야로의 투자 편중은 향후에도 고용시장이 약화될 수 있음을 의미

- '25.12월 실업률은 전월보다 소폭 하락(4.5% → 4.4%)했으나, 신규 고용자수는 2개월 연속 5만명 수준을 기록하며 정부 셧다운으로 인한 '25.10월 해고자수(17.3만명)를 회복하지 못함*

* '25년 연간 신규고용자수는 58.4만명으로 '24년 대비 29% 수준에 그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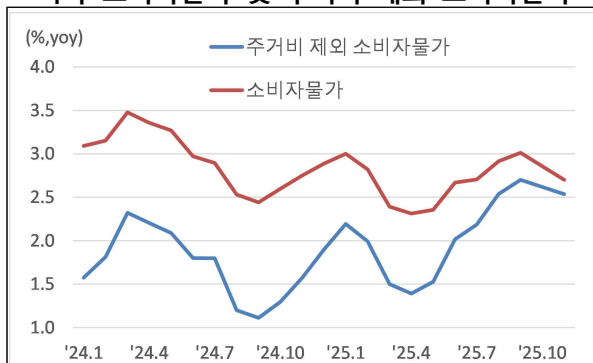
- 정보처리설비 및 소프트웨어 등 AI 관련 부문을 제외하면 부진한 흐름*이 이어지고 있어 고용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

* 정보처리설비 투자(% , qoq 연율): 0.6('24.4Q) → 62.7('25.1Q) → 11.7(2Q) → 8.4(3Q)

소프트웨어 투자(% , qoq 연율): 2.8('24.4Q) → 18.8('25.1Q) → 26.6(2Q) → 3.1(3Q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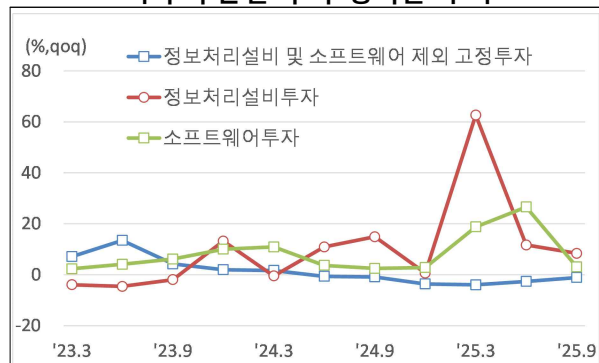
정보처리설비 및 소프트웨어 제외 고정투자(% , qoq 연율): △3.6('24.4Q) → △4.0('25.1Q) → △2.6(2Q) → △1.1(3Q)

미국 소비자물가 및 주거비 제외 소비자물가



자료 : Refinitiv

미국 부문별 투자 증가율 추이



자료 : Refinitiv

□ 연준 의장 교체를 계기로 하반기부터 금리인하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

- '26.1월 FOMC에서는 3차례 연속 금리인하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
 - 파월 의장은 '25.9월 이후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추정치 범위에 들어갔다는 평가를 제시*한 점을 미루어, 남은 임기 중 금리인하에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이 유력

* '25.9월 이후 기준금리가 중립 범위에 들어왔으며 향후 발표될 데이터, 변화하는 전망, 위험 요인 등을 감안해 기준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됐다.('25.12월 FOMC 기자회견 중)

- '26.2분기 중 의장 교체가 예정돼 있어 물가 지표가 안정적인 경우 하반기부터 금리인하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
 - 파월 의장의 임기는 '26.5월로 종료되며, 트럼프 대통령은 '26.2월 중 차기 의장 후보자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짐
 - 파월 의장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케빈 해셋*이 의장으로 취임할 경우 마이런 이사와 함께 하반기 이후 금리인하 기조를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
 - 높은 금리에 더해, AI 확산에 의한 노동수요 감소 가속화 위험이 가시화*되고 있다는 점은 하반기 금리인하 견해를 지지하는 요인이 될 전망

* Stanford 연구진은 AI 노출이 높은 직무에서 22~25세 고용이 '22년 이후 13%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('25.11월)하였으며, 델러스 연은은 AI 효과가 '해고 증가'보다는 '고용 감소'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('26.1월)를 발표